

근·현대 한국인의 중국 인식(認識)과 중국인의 한국 인식 변화*

김진호**

<목 차>

1. 머리말
2. 연구 동기와 방법
3. 한국인의 중국인식 변화
4. 중국인의 한국인식 변화
5. 한국과 중국의 상호인식과 인식속의 문제
6. 결론-기존의 한·중 관계와 앞으로의 과제

1. 머리말

19세기중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구열강의 아세아 침략과 때를 같이하여 아시아에 있는 국가 중 유일하게 일본은 제국주의화 되어 한국, 중국 및 동남아시아를 침략하였다. 이에 20세기 초 한국은 완전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중국은 반식민지로 변하여 피압박민족의 전철을 걷게 되었다.¹⁾ 중국은 청조(淸朝)

* 본 논문은 2004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중국지역학 조교수.

1) 이재령, 《남경국민정부시기 한국인론의 중국인식》, 〈동아일보〉 (1929-1935) 기사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Vol.15, (서울 : 2003), p. 285.

에서 중화민국(中華民國)으로 바뀌었고, 1937년 일어난 '9·18사변'으로부터 시작된 일본과의 전쟁으로 1945년 8월 15일까지 8년간의 항일투쟁(抗日鬪爭)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의 국민당(國民黨)과 공산당(共產黨)의 협력 및 분열 등의 내분으로, 1949년 대만(臺灣)과 일부 도서를 제외한 중국 본토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으로, 대만은 손문(孫文)의 삼민주의(三民主義) 사상에 입각한 중화민국(中華民國)으로 나뉘어 졌다. 반면,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강대국들의 결정에 따라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를 거쳐 대한민국(大韓民國)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으로 갈라졌다.²⁾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분에 의해 나누어진 것이고, 한반도는 강대국의 이익에 따라 북위 38°를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3년간 신탁통치 이후 독립되었다가 다시 민족 전쟁인 '6·25전쟁(한국전쟁)'을 통해 '휴전선'이라는 경계선으로 분열된 상태로 남게 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모택동(毛澤東)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 전 세계에 선포되었고, 중화민국은 1949년 5월부터 중국 본토에서 본격적으로 대만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장개석(蔣介石)이 이끄는 국민당 군대와 중국대륙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중화민국은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이전하였다고 법통에 근거하여, 대만으로 이전한 중화민국이 1912년 남경에서 설립한 중화민국의 법통을 잇는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³⁾

그러나 사실 이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이전한 후 실제적인 중국 본토를 통치해 본 적은 없고, 중화인민공화국도 '하나의 중국원칙(One China Policy)'을 세계적으로 관철시키려고 국가통일 강령이나 국가외교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아직 대만을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점령한 적은 없다. 과거 중국은 꾸준히 대만 점령을 위한 시도를 했는데, 1958년대 중국군의 대만 금문도 포격은 당시 냉전체제에서 살아

2) 1991년 8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안이 통과되고 9월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유엔가입안이 159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북한은 160번째, 한국은 161번째 유엔 가입국이 되었고, 이로써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국호로 사용하게 되었다.

3) 신승하, 《중국》,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p.494-496.

가는 국가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적성국가의 우방국가 공격으로 인식되었다. 4) 이러한 문제는 대만 헌법에 아직도 몽골(Mongolia)이 중화민국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거나 중국행정규획에 대만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동서가 냉전의식(冷戰意識)으로 서로 대치하는 기간을 우리는 냉전시기(冷戰時期)라고 하는데, 이 시기의 특색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국가군들이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교류를 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교류를 하던 시기를 말한다.⁵⁾ 이 냉전시기는 1980년대 말부터 연이어 일어난 동구와 소련의 몰락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극도로 줄어들고, 사회주의 국가들도 전면적으로 개혁·개방을 하는 단계로 이어졌고, 소련과 미국을 축으로 동서로 나뉘던 시대가 무너지고 미국이 전체적으로 세계의 주도권을 이끄는 상태에서, 중국이 서서히 개혁개방을 통해 세계의 무대로 등장하는 시기가 이 시기의 특징으로, 즉 세계가 새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인 20세기말부터 21세기를 우리는 ‘후 냉전 시기(Post Cold War)’ 혹은 ‘냉전 후 시기’라고 부르고 있다.⁶⁾

이 시기 한반도에 있는 두 국가와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나뉜 두 국가는 서로 냉전적 사고에 의해 서로간의 호칭을 분류하여 불렀다. 즉,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한반도의 북쪽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라 불렀고, 한반도 남쪽은 남조선(南朝鮮; South Korea)이라고 불렀다. 반면 중화민국(中華民國; Republic of China)은 한반도의 남쪽을 대한민국(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이라고 불렀고, 북쪽을 북한(北韓; North Korea)이라고 불렀다. 이 시기는 대한민국도 대만을 중화민국으로 중국 본토의 정권을 중공(中共; 中國共產黨, The

4) <http://news.media.daum.net/foreign/asia/200407/28/donga/v7095969.html> (2006년 6월17일)

1958년 8월 23일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 불과 10km 떨어진 진먼다오(金門島)에 2시간 동안 무려 3만여 발의 포탄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날 포격으로 대만군 중장(한국군 계급으로는 소장) 3명을 포함한 군인 600여명이 숨졌다. 포격은 10월 하순까지 두 달 동안 이어졌다. 유명한 ‘진먼다오 포격사건’이다.

5) Barry Buzan, *People, States and War :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second ed., Boulder, Colorado : Lynne Rienner Publishers, 1991.

6) 강준화, 《당대중국학입문》, (서울 : 박영출판사, 1998), p. 75-80.

Chinese Communists)으로 불렸으며⁷⁾, 한반도 북쪽은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으로 중화민국을 대만(臺灣)으로 부르던 때이다.⁸⁾ 이 시기 적대국간에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서로 사상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에 대한 불인정과 동시에 이러한 국가에 대한 호칭자체로도 적대 국가를 비하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시기

7) http://www.kplibrary.com/document_view.aspx?no=58(2006년 6월18일)

디지털 북한백과사전

1948년

3.16 : 북한-중국 비밀군사협정 체결.

9.18 : 중국 모택동과 중국군사령관 주덕, 북한의 정권 수립에 즈음하여 축전.

10.12 : 북한-소련 수교.

10.13 : 소련으로부터 외교관계 설정(승인)에 관한 서한 도착.

10.15 : 북한-몽골 수교.

10.16 :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해방기념상」을 제정. 소련 최고상임위원회, 스티코프를 북한주재 대사로 임명. 북한-폴란드 수교.

10.21 : 북한-체코슬로바키아 수교.

10.27 : 루마니아-북한간 외교관계 설정.

10.30 : 북한-유고슬라비아 수교.

11. 6 : 「중국동북해방지구」 중국인으로부터 김일성에 선물(양곡 150만톤).

11.11 : 북한-헝가리 수교.

11.28 : 북한-불가리아 수교.

12.26 : 북한주둔 소련군, 25일에 철수 완료했다고 발표.

1949년

1.11 : 북한주재 소련대사 스티코프대장, 평양 도착(14일 신임장 제출).

2. 9 : 외무상 박헌영, 유엔에 「人共」 가입 요청 다진.

2.22 : 방소대표단(단장 : 김일성) 일행, 모스크바로 향발.

4.19 : 「최고인민회의」 제1기 3차 회의 개막(5일간) 방소위원단 보고, 지방 「인민위원회 선거」 총결, 1949년도 종합예산 등을 결정.

5.17 : 북한-알바니아 수교

10. 6 : 중국정권 승인. 외교관계 설정.

11. 7 : 북한-동독간 외교관계 수립.

12.22 : 중국주재 초대대사 이주연 임명.

1950년

1.31 : 북한-월맹간 외교관계 설정 합의.

6.25 : 새벽 4시, 인민군 38선 전역으로부터 불법 남침을 개시.

8)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북한은 먼저 1948년 소련과 수교를 하고 나서 1949년 중국과 수교를 한 것이고, 한국은 1948년에 중화민국(현재 대만)을 대한민국 제1호 수교국으로 수교하여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된 것이다. 즉, 이제 한국과 중국의 수교도 15년이 되어가지만, 1948년부터 1992년까지의 긴 시간을 우리는 중화민국을 중국으로 인식하고 지낸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인민들과 자본주의 진영의 국민들의 적대국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이데올로기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나뉜 중국지역과 한반도의 서로 다른 진영은 서로의 입장에 따라 호칭조차 다르게 부르는 미지의 국가에 대한 혼돈(混沌)과 이데올로기에 의한 고정된 사고(思考)가 바로 이 시기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이나 자본주의 국가 국민들이 서로를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틀이 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주의 노선 탈퇴와 개혁개방 그리고 한반도 남·북쪽 국가들의 상호간 노력은 결국 1991년 9월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UN)에 가입할 수 있는 역사적 현실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이 정식 수교를 하게 되면서 중국은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기 시작했으며, 반대로 국제무대에서 힘을 잃은 대만은 한국을 남한으로 북한을 그냥 북한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대륙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의 국교수립과 교류는 단순히 상대 국가의 호칭만을 바꾸어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가 정책의 변화와 그 국가 국민들의 해당 국가에 대한 역사의식과 여러 방면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 즉, 국교 수립이라든지 실제적 교류가 상대방 국가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⁹⁾

2. 연구 동기와 방법

이 논문은 한·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했던 현지 중국인들과 우리 한국인들의 한국과 중국·대만에 대한 인식변화를 학문적 내용에 근거하여 역사적 순서

9)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교하기 이전 중국은 중국대륙이나 중공으로 대만은 중화민국으로 부르려 하며, 한·중 수교 이후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으로 부르려고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국'이라고 부르는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

와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정리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보면 상식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 사건의 진행에 따라 그 지역 사람들의 우방과 적대국에 대한 관념의 변화는 앞으로 대만문제를 포함한 한·중관계의 변화 혹은 한반도 통일 후에 새롭게 나타날 중국과 한국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논문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상호 인식문제를 생각하면서부터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난 실제적인 교류에 근거하여 그 지역 국가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상대방 국가와 국가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는 논문을 쓰려고 시도하였으나, 구체적 조사나 분석이 따르지 못하고 그 내용을 정량화시키지 못해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연구와 분석이 따로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현재 한·중 관계에 대한 논문은 많은 편이나 한·중 교류와 문화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실제적인 정부부서나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 부분의 분석결과를 실제 어떻게 학문연구와 연계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앞으로 중요한 연구영역이 될 것으로 본다. 즉, 기존에 업무수행 부서에서 만들어낸 한·중 관련 연구보고서와 통계를 어떻게 체계적인 학술적 논문으로 바꿀 수 있는가가 중요한 한·중 관계 연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나라와 모두 국교를 맺고 있으며, 동시에 두 나라와 정치, 경제, 문화, 체육, 군사 등 다방면으로 꾸준한 교류를 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입장에서 지난 역사 사실을 등한시하고 단지 현실적인 문제로 중국과 교류하게 되는 것과 중국이 한국과의 역사를 청말(淸末) 조선시대(朝鮮時代)와의 관계의 연속으로 한·중 관계를 보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문제점이란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의 관계라든가, 항일투쟁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국 국내의 국민당과 공산당 등의 관계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관계¹¹⁾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중

10) 胡春惠, 신승하 역, 《중국인의 한국독립운동》,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P.1-19, p. 1-19

11) 方秀玉, 《中國對朝鮮的政策-歷史回顧與現實困境》, '중국 속의 세계, 세계 속의 중국', (현대중국학회, 인천대학교 2005년 하반기 국제학술회의), P.1-14.

화민국) 관계도 모두 한·중관계로 인식해야하는지 등의 문제를 갖게 된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이고 한국은 자본주의국가로 이미 반세기이상 서로 다른 국가형태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기반으로 국가가 유지되었기에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생활하고 있고, 북한도 사회주의국가로 중국과 유사한 다른 역사를 갖고 살아온 상태이다. 그래서 사실, 현재 한·중간에 나타나는 적지 않은 문제가 서로간의 국가적 이익에 만들어진 상호간의 인식의 차이일지도 모르며, 혹은 이미 갖고 있는 고정된 인식이 만들어낸 교류와 충돌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통일을 생각하는 한반도나 아시아의 문화·경제적 통합이라는 현실적 과제 아래 아시아의 문화·경제적 공동체의식에 한국 국민이나 중국 인민이 서로 올바른 상호인식이 있어야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교류국가 국민들의 정확한 인식은 발전성 있는 미래 건설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¹²⁾ 더 나아가 한국정부와 국민의 중국정부와 중국 인민에 대한 인식은 그래도 비교적 중국과 유사한 체제를 갖고 있는 조선 정부와 조선 인민의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의 중공과 중화민국과의 관계 그리고 1992년 이후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및 대만의 관계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적 중국인식 문제는 누가 중원을 차지하고 우리나라가 중원¹³⁾의 어느 국가와 국교를 수립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동·서 냉전시기 분단은 우리에게 변방의 중국을 명나라로 중원의 중국을 청나라로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명·청 교체시기의 상황과 비슷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이 기간 동안의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이 지역 국민과 인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국가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서로간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의 정체와 정책이 서로간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다. 탈냉전시기 모든 국가들은 국가이익이 더욱 중시되어 실

12) “대화로 충돌 막아야” <한중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동아일보와 중국 런민(人民)일보가 공동 주최한 동아일보 창간 85주년 기념 심포지엄, <동아일보>, 2005년 3월 27일.

13) 許倬雲, 《萬古江河》, (臺北市: 英文漢聲出版股份有限公司, 2006), P.1-19, p. 1-8.

‘중원’이라는 의미는 지리적인 의미로 고정적이지 않고 정치·문화적 의미로 이동 했다.

제적인 외교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고 과거의 관념을 벗어난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런 일에도 정부나 국민의 지지가 세계의 흐름과 부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정부나 연구자의 연구물이나 매스미디어와 정부 요인이나 국민들의 실제적 교류가 상대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예를 들어 과거, 냉전 시기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화민국(대만)을 통해 중국 대륙을 연구했으나, 1992년 이후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을 통해 전체적인 중국을 이해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도 국가의 정책과 언론보도에 영향을 입어 그 국가의 정책을 대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중국인에 대한 연구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지역적으로 나누어 연구하고,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관되게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본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개인적인 사교가 한국에 대한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들은 인터넷을 통해 아주 빨리 확산되고 있다.¹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인들이 사실은 너무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에 그저 어느 한 부류를 두고 그들의 한국인식을 얘기하기에는 연구가 구체적이거나 정확할 수가 없다. 중국대륙에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인식하는 사람들과 대만에서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을 인식하는 것, 홍콩, 마카오 그리고 동남아의 화교들과 구미의 화교들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북쪽을 인식하는 것은 모두 제 각각일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중국에서 조선족이라고 칭하며 중국인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한반도 남쪽과 북쪽에 대한 인식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에 있는 화교들의 한국에

14) 김진호, 김정진, <중국,대만,홍콩 젊은이들의 '한류'속 한국 문화와 기업에 대한 인식 조사>, 第15屆中韓關係學術會議,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2006년 6월 2일.

江迅, '新韓流VS反韓流文化立國風雲起', <亞洲週刊> 十九卷四十三期, 2005年10月23日.

현재 한국은 '중국열풍'이 꾸준히 불고 있고 중국과 아시아에는 한류의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 상태이다. 여러 보도를 보면 '한류'와 '중국열풍'을 모두 긍정적으로 보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인터넷을 통해 중국인들이 '한류'를 통해 보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댓글을 보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반면, 한국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면으로 보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

근·현대 한국인의 중국인식(認識)과 중국인의 한국 인식 변화 381
대한 인식과 북쪽에 대한 인식 등등.....여하튼, 앞으로 인식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구체적 분류가 선행되어야 정확한 연구와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 논문은 우선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연구 대상 국가로 하고, 그 두
나라의 국민과 인민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그 국가의 구성원인 중화인민
공화국의 정부와 인민과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그 인식의 주체로 하여 논문을
구성하였다.

3. 한국인의 중국인식 변화

1840년 발발한 청(淸)과 영국간의 아편전쟁에서 청이 패배하고 남경조약을 맺
은 사건을 계기로, 종래 아시아의 세계질서는 붕괴, 해체되기 시작하고 중국과 그
이웃한 국가들은 서구 열강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 안으로 강제 편입되었
다. 청과 일본만을 상대하던 조선도 1860년대부터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구열강
들로부터 침입을 받으면서, 결국 조선은 엄격히 지켜 온 폐관쇄국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¹⁵⁾

특히, 조선은 1868년 일본이 명치유신을 겪으면서 제국주의 국가의 대열에 참
여한 후 일본의 침략 대상이 되어, 종래의 중국적 세계질서로부터 이탈할 것을 일
본 제국주의로부터 강요받았다. 일본에서는 명치유신(明治維新) 직후부터 정한론
(征韓論)이 대두되어, 조선은 일찍부터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요동(遼東)과 중국으
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주목 되었다. 이리하여 1875년에 일본의 운양호(雲揚號)가
강화도를 침공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일본의 강요로 '조일수호조약', 즉 '강화도 조
약'이 맺어져, 타국의 압박에 의해 '조선이 자주적 국가임'이 처음으로 선언되었
다.¹⁶⁾

15) 郭廷以, 《近代中國史綱》, (Hong Kong : 中文大學出版社, 1986년), P.1-19, p. 43-84.

16) 윤병석, <1910년대의 국내외 독립운동>, 《한국근대사의 재조명》,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

이를 계기로 1882년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서구 열강과도 수호조약을 맺어, 조선은 불가피하게 근대적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때부터의 한·중 관계도 종래의 전통적 관계를 바꾸어 조선이 일본에 강점되는 1910년은 수천 년 유지되어 온 한·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그 성격과 형태를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기가 되었다.¹⁷⁾

20세기 초, 한·중 관계는 과거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 시기의 한·중 관계는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수천 년 동안 유지되던 책봉조공관계가 종식되고 근대적 외교관계가 수립되었으며, 경제·문화적으로도 책봉관계에 종속된 경제·문화적 교류를 극복하고 근대적 형태의 경제·문화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¹⁸⁾

1910년부터 1945년대까지는 일본 제국주의의 세력이 중국과 한국 그리고 요동을 동시에 침략한 시기였고, 중국과 한국 그리고 요동이 함께 일제에 저항한 역사적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한·중 관계는 일제라는 공동의 적을 맞아 한국과 중국이 함께 싸우는 혈맹의 관계였다. 이 시기의 한국과 중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화민국이라는 국가(정부)가 존재했으나, 이들 한국과 중국의 국가(정부)가 당시 한국과 중국의 이익과 주권을 명실상부하게 지켜주지 못하였기에, 이 시기 한·중 관계의 주체는 한·중 양국의 국가가 아니라 저항적 민중세력이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이 시기의 한·중 관계는 중국 측의 표현으로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로 국가와 국가 관계라 하기 보다는 일본 제국주의에 같이 대항하고자 하는 국민 정서의 일치로 국가 조직이나 민간조직 혹은 각지에 있는 중국인들과 독립운동을 위해 흩어진 한국인들이 일본 타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 ‘상부상조(相扶相助)’의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¹⁹⁾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서 퇴각한 뒤에, 한국에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건립되었고, 중국에서는

부, 1977년), P.133-142.

17) 김한규, 《한중관계사Ⅱ》, 대우학술총서 423 논저, (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1999), p. 819-914.

18) 박준규, 〈개항시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 《한국근대사의 재조명》,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7년), P.19-29.

19) 胡春惠, 신승하 역, 《중국인의 한국독립운동》,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76년), p. 25-30.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공존하였다. 이 시기 전기의 한, 중 관계는 전후 냉전체제에 의해 철저하게 규정되어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의 일대일 관계가 유지되었으나, 냉전체제가 와해된 후기에 이르러서는 대립과 단절이 극복되고 화해와 공존이 추구되어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만(중화민국)들의 다중 외교관계가 재현되었다.²⁰⁾

한국과 중국은 과거 오랜 역사 동안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편전쟁으로 중국의 몰락과 일본의 제국주의화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화는 기존의 한, 중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으며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 중 관계는 꾸준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²¹⁾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상호인식은 꾸준히 변해왔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²²⁾

즉, 봉건시대 한국의 중국 인식은 중화사상을 토대로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관계 안에 머물러 있었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한, 중, 일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중국 중심의 봉건체제가 무너지면서 일본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되었다는 것으로, 이 새로운 변화는 1930, 40년대 그 절정에 이르렀다. 식민지시대의 한국인의 중국인식은 과거와 사뭇 달랐다. 그 동안 가졌던 대국으로서의 막연한 동경이나, 전통적 중화사상과 조공체제의 틀에 얽매인 정치·경제적 상대적인 빈곤함에서 벗어나 ‘반식민지’ 상황에 놓인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이웃 나라로 중국을 바라보았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공통적인 시대상황으로 한국 사람들은 열강의 중국침략에 공분(公憤)하고 반외세투쟁과 국민혁명운동과 혁명지도자 등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조선 사람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한 지원세력과 방법을 모색하던 상황에서 중국의 반외세, 반봉건 투쟁은 가장 가까워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이 되었기 때문이다.²³⁾

20) 김한규, 《한중관계사Ⅱ》, 대우학술총서 423 논저, (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1999), p. 987-988.

21) 이규수, 임경석, 진재교 외, <근대전환기 한국인의 자의식과 대외인식>,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속의 한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4), p. 15-74.

22) 김진호, <냉전 후 동북아 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한국 외교전략>, (북경: 북경대학 박사학위논문, 1998).

23) 이재령, <남경국민정부시기 한국인론의 중국인식>, <동아일보> (1929-1935) 기사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Vol.15, (서울: 2003), p. 287.

중국이 1949년 10월 천안문 광장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며 주창했던 ‘반봉건주의, 반식민주의, 반제국주의’라는 이념 중에서 ‘반제국주의’는 열강들의 중국 침략에 대한 중국국민 정서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²⁴⁾ 그리고 중국과 한국, 중국과 조선 혹은 중국인과 한국인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근대사에서 반제국주의 혁명을 같이한 항일투쟁의 역사로 중국과 한국 두 민족의 민족 정서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이 순망치한(唇亡齒寒)적 사고로 선린외교(善隣外交)에 힘쓰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²⁵⁾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탁통치를 거쳐 남한이라는 반쪽의 나라로 불완전하게 독립되어 외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며 꾸준한 정치, 경제, 외교적 성장을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중화민국(대만)과 수교를 맺고, 정치적으로 냉전체제에 따른 반공주의와 국가 주도적 안정과 발전을 위해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동·서의 화해의 분위기와 북방외교(北方外交)는 결국 대한민국이 과거 냉전의 틀에서 벗어나 구소련, 몽골, 동유럽 국가들 및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고 이념을 초월한 실리적 외교를 하게 되었다. 반면, 시대의 조류에 뒤쳐있던 대만과 북한은 결국 한국의 빠른 행보에 때로는 비난과 때로는 부러움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전통적인 한·중 관계에서 이념을 뛰어 넘은 실리적 외교를 이루는 동안 한국은 많은 출혈을 했고, 많은 욕을 먹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패권외교의 양상으로 중국은 한국과 조선 두 나라와 동시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면서, 한국이나 조선이 대만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1971년 중화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계승하고 대만은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이론공세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아세아에서의 강경한 국제정치적 발상은 아세아 국가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24) 송봉규 외, 《중국학개론》, (서울 : 동양문고, 1998), p. 89-117.

25) 김한규, 《한중관계사II》, 대우학술총서 423 논저, (서울 : 도서출판 아르케, 1999), p. 917-986.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문장을 중국인들은 일본인들과 미국인들이 거론하는 ‘중국위협론’²⁶⁾이라고 설명하며, 자신들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으로 많은 인민을 먹여 살려야 하기에 절대로 위협적 대상이 아니라고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통해 항변한다.

한국인의 중국 인식변화를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²⁷⁾

표1 <시기별 한국인의 중국 인식변화>

시기	한국인의 중국인식 내역
1840이전 ²⁸⁾	전통적 한·중 관계로 인식.
1840-1910년	전환기적 한·중 관계로 인식.
1910-1945년	항일 투쟁을 위한 민중세력의 협력단계로 인식. 임시정부와 중국 국민당, 동북항일단체와 공산당의 항일 공조
1948-1992년	한국전쟁을 통해 중공과 중화민국에 대한 의식이 더욱 공고해짐 냉전시대 속의 한국과 중화민국과의 교류단계.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류관계. 남한은 대만을 우방으로 북한은 중국을 우방으로 생각하며, 교류를 하던 시기.
1992년 이후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수립. 중국의 ‘하나의 중국정책’ 안에서의 실리적 교류를 시작.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는 실제적 교류를 하며, 과거 중국에 갖고 있던 국민들의 인식이 빠른 속도로 중화민국 계통의 역사관

26) 미국, 일본과 중국간에 “중국은 과연 위협적인 존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된 이 논쟁의 시발점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때의 인권문제, 1996년의 양안관계로 인한 두 나라의 분위기가 대립적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 발단이다. 원인은 중국과 미국은 오랜 기간 무역수지 불균형과 통상마찰, 핵 확산 방지, 화생무기, 미사일의 해외수출, 그리고 핵실험 금지조약 등 군사안보 현안에 대한 대립 등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중국 위협론’이다. 미국의 일부 언론과 학자들은 경제발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중국에 대해 위협을 느꼈고 이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27) 여기서 조선(북한) 인민의 중국인식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대한민국의 중국인식에 대해 정리를 하였다.

	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계통의 역사관으로 바뀌어 나감. 중국을 우리의 미래로 생각하고 한국과 긴밀히 협조해야 할 나 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됨.
--	-----------------------------------------------------------------------------------------------------

4. 중국인의 한국인식 변화

조공관계의 틀 속에서 259년간 지속되었던 조선과 청의 관계는 청(淸) 광서(光緒) 20년(1894년) 발생한 청일전쟁에서 청 정부가 패하고, 그 다음해 청과 일본이 맺은 마관조약(馬關條約)으로 이 오랜 조공관계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동·서양이 아세아에서 서로 격동하는 시기에 청나라 조정에서는 조선에 대한 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수한 정치가, 군인, 상인 등을 조선에 파견했다. 그러나 청 조정의 이러한 노력은 일 제국주의의 힘을 결국 막아내지 못하고 조선은 일본의 손에 넘어갔다.

청나라 조정은 한국을 월남과 같이 청의 조공 국가로 꾸준히 보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결국 일본에 강점되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다. 이때부터 청 조정도 꾸준히 서구 열강의 침략에 봉착해야 했다. 조선이 식민지로 몰락한 후 바로 성립된 중화민국 정부(혹은 중화민국 집권당)은 근대사 속의 서구 열강을 제대로 인식하고, 중국의 현실을 자각하고, 일제 식민지인 조선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이러한 이유로 중화민국 정부(혹은 중화민국 국민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승전국의 입장으로 한국의 독립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당시까지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갖고 있던 장개석 군사위원장은 한국의

28) 시기적 구분은 1840년을 중국이 근대화되는 시기로 보고, 아편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기를 중국 근대화의 시기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1911년 신해혁명을 중국근대화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와 1919년 '5·4운동'을 중국근대화로 보는 경우가 있기에 이 분기점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다. 그래서 조선이 1910년 일본에 강점되고, 1911년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1919년 한국의 '3·1운동'과 중국의 '5·4운동'이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1910년대가 좋을 듯하다. 이러한 이유로 1840년대 이전과 1840년 이후부터 1910년대로 시기를 나누어 구분해 보았다.

독립을 통해 일본 세력이 대륙에 근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내분과 한반도의 남과 북으로의 분열은 한국을 냉전시기 내내 이데올로기적 ‘흑백 논리(黑白論理)²⁹⁾에 근거하여 사상을 같이하는 국가 끼리만의 유대관계만 유지되어왔다. 즉, 대한민국은 중화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적 관계만 공고히 유지하게 되었다.³⁰⁾

중국과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그리고 중국의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강화로 대만은 천천히 국제무대에서 국가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세는 결국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교정상화까지 이르게 되었다. 즉,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은 아세아에서 중국에 외교적 초점을 맞추고 대만과는 실제적인 교류만을 하고 있으며,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인들의 눈에 ‘조공국가 조선의 백성’에서 ‘식민지의 유랑 민족’으로, ‘식민지의 반노예’에서 ‘독립국가의 국민’으로 비추어진 한국인들은, 이제 중국인들의 눈에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다. 또 다른 지역의 중국인들인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그리고 동남아의 화교들과 전 세계의 화인들은 모두 ‘한강의 기적’, 서울 올림픽, 월드컵과 ‘한류’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 단지, 북쪽 조선의 상황은 모두 우려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으면, 탈북자의 모습으로 그들의 눈에 비쳐지는 조선과 그곳 인민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아주 불쌍하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표2 <시기별 중국인의 한국 인식변화>

시기	한국인의 중국인식 내역
1840년 이전	봉건시대의 중원 국가와 아시아대륙 동북지역과 한반도 거주

29) 서독 정부의 총무처장관이었던 할슈타인이 외무부차관시절 동독을 승인하는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ktrin)을 입안했고, 그 후 이 이론은 냉전시대의 대표적 이론이 되었다.

30) 이규수, 임경석, 진재교 외, ‘중국인의 한국인식’,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속의 한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4), p. 77-215.

	<p>국가-조공국가 형태로 봄.</p> <p>정통적으로 중국인들은 이 시기에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한국을 변방의 국가로 생각하며, 정치나 경제적으로 한국을 조공국가로 생각함. 그러나 한국은 중국에 소수민족이 있는 국가 중에서 몽골과 같이 독립된 국가를 갖고 있고, 과거 중국의 역대 왕조와 꾸준한 전쟁을 한 것을 보면 완전히 중국의 조공국가로 보는 중국의 의견에는 문제가 있음.</p>
1840-1910년대	<p>계속하여 형식적이지만 한국에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지만, 중국 내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과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과 조선의 침략과 강점으로 조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단계-한국이 식민지로서 형식적 자주권을 갖는 단계-중국으로부터의 탈피.</p> <p>중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중국의 조공국가로 생각하며, 조선에 대해 외교통치권을 인정하지만 형식적 조공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나타내려 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백성을 중국의 조공국가 백성의 하나로 봄. 중국은 유구(流求), 버마, 타이, 라오스, 월남, 조선을 자국의 조공국가로 생각하면서 특히 조선과 월남을 확실히 자신의 조공 국가라고 주장함.</p>
1910-1945년대	<p>국민당이나 공산당 그리고 국민들이 이는 조선은 중국과 같이 항일투쟁을 하는 혁명의 국가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과거 조공 국가에서 독립을 필요로 하는 중국의 우방으로 생각하여 중국인의 조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기 시작함.</p> <p>중국과 중국 사람들은 이 시기 중국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 민족을 보고 한국인이 독립국가의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는데, 이 시기가 중국인들이 세상을 인식하고 각성하고 한국인에 대한 큰 사고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임.</p>
1948년-1992년	<p>중화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정책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을 무찌르고 조선을 돕는다는 뜻에</p>

	<p>서 6.25전쟁의 혁명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형제와 같은 관계를 유지함.</p> <p>중화민국은 한국과 정치, 경제, 무역, 항공, 통신 등에서 최대의 협조를 하고 서로 최대의 우방국임을 인정함.</p> <p>중화인민공화국은 조선과 혁명의 관계로 생각하며 조선의 자주독립성과 중요성을 김일성, 모택동, 주은래, 팽덕해 등이 직접 챙김.</p>
1992년 이후	<p>서로 혼돈을 일으키며 실리적 교류를 하는 시기-협력과 마찰이 동시에 일어나는 가까운 이웃이자 경쟁자인 단계.</p>

5. 한국과 중국의 상호인식과 인식속의 문제

한국과 중국의 상호인식은 두 나라 모두 한 나라에서 두 나라 혹은 두 지역으로 나누어지면서 냉전에 의한 일부 지역과의 장시간 교류의 중단으로 서로의 인식에서 많은 혼돈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중국이라는 국가가 보는 한국과 중국 사람이 보는 한국과 한국인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즉, 한·중 관계가 원만할 경우, 중국인이 보는 한국·한국인이란 중국인의 특성상 이들은 정부 정책과 중국사회의 영향은 받으나, 비교적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점도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중국정부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 중국 인민들의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집단적인 감정이 표출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인은 때로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는 인민이지만 때로는 국가를 대변 하는듯한 사회주의 국가의 애국자들로 생각할 수도 있다.³¹⁾

31) 임계순, 《중국인이 바라본 한국》,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2); 예건중, 김하림 번역 《중

국가적 개념인 중국의 입장에서 보는 한국이란 중국 지도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보는 한국을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극히 정책적이고 정치적이고 외교적이며 국제적인 문제이다. 비록 중국 인민의 생각은 국가를 대표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국가 지도자의 정책은 인민을 서로 한 방향으로 몰아 뭉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특히 반세기 이상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국가의 공적 지도력이란 막강하다. 즉, 중국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란 국제적인 면에서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정치, 경제, 군사, 역사, 사회, 문화, 체육 등에 나타난 국가의 정책적 입장으로, 이성적이고 분석적이며 항상 자국의 국가이익을 고려하게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인이 보는 한국과 한국인이라는 것은 중국인 개개인이 처한 환경과 각자 접한 한국에 대한 직·간접의 이해로 한국에 대한 형상이나 인식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란 지역별, 연령별, 개인별로, 시간적, 공간적 환경과 이에 따른 감정의 변화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으나, 중국정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즉, 중국인의 한국관은 비교적 오랜 기간을 두고 자연적으로 형성되나 짧은 기간에 바뀔 수도 있으며, 중국정부의 한국관은 준비 기간은 길지만 외형적으로 일순간에 표출되며 이것은 항상 이성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국가의 정책을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또한, 중국정부의 한국관과 그 행동은 일단 그 내용이 외부로 표출되고 난 후에야 그것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과 사후 대비 작업이 이미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언론 장악은 국민정서를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일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준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³²⁾

국인도 다시 읽는 중국사람 이야기», (서울 : 에디터, 2001); 彭邁克(Michael Harris Bond), 《難以捉摸的中國人》, (Hong Kong :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등 참조.

32)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s_plus/news185/np185ff030.html (2006년 6월 17일)

나토의 주(駐)유고 중국 대사관 오폭 사건으로 인한 중국내 반미시위가 수그러든 가운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연내 가입 여부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정부가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지난 4월 방미 당시 미국에 제시한 추가 양보안의 철회를 시사하는 등 강경한 모습

현재 중국이 고구려 문제, 중국 남사군도(南沙群島) 문제와 조어대(釣魚臺) 문제의 해결에서도 항상 자국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중국은 주변 국가와 그 국가 국민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이해(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인도, 파키스탄, 중국과 몽골 그리고 중국과 신장(新疆) 위구르 민족 지역, 서장(西藏) 장족 지역의 문제를 보더라도 중국의 문화, 민족, 영토 패권주의는 한반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³³⁾

중국은 1989년 천안문사태³⁴⁾ 나 파룬궁(法輪功)³⁵⁾ 의 문제만 보더라도 중국의 분열에 얼마나 두려워하며 자신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의 형성에 대해 조기에 그 발전을 무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을 보면, 중국 정부의 중국 인민에

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빌미로 실속을 챙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니, 중국은 오히려 미 중앙정보국(CIA)의 '옛날 지도'로 인한 오폭을 속으로 반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33) <http://www.SEGYE.com>, (2004년8월28일).

'한국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가시화하는 중화 패권주의 6', <세계일보>

34) 1989년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각지의 학생들은 민주와 자유를 요구하며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이 운동은 현실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 시민의 지지를 얻어 예상을 넘어서는 규모로 확대되어 한때 천안문광장이 "민주, 자유"를 부르짖는 학생 시민으로 메워졌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민주, 자유"가 사회주의적 민주 자유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체제의 위기를 느낀 당소령을 비롯한 당의 지도자는 학생들의 운동을 "반혁명 폭란(동란)"이라 규정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이를 무력으로 제압했다. 특히 북경에서는 6월4일 천안문광장을 점거하고 있던 학생 시민에 대하여 인민해방군이 출동하여 전차의 돌입과 기관총난사에 의한 무력 진압을 강행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를 낳았다. 이후, 무력 진압에 반대의 뜻을 밝힌 조자양 총서기는 실각하고 보수파가 일단 실권을 장악했으나 앞길은 불투명했다. 천안문 사태에 대한 무력진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위신을 안팎으로 크게 실추시켰다.

35) 파룬궁(法輪功)의 창시자 리홍즈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1990년 4월25일 북경 중하이난(中海南) 시위사건 때문이다. 1만 명 가량이 운집한 이날 시위는 당시로부터 꼭 10년 전인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베이징에 운집한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이미 중국 정부가 '파룬궁'의 빠른 확장세에 불안을 느끼며 주목하고 있던 터에, 중국 권력의 심장부인 중하이난에 1만 명이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사자인 중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었다. 더욱이 그 시기가 '6·4천안문사태' 발발 10주년이 임박한 때여서 중국정부의 긴장은 각별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현재 중국정부는 '파룬궁'에 대한 그간의 '용인 과 경계'의 자세를 훌쩍 넘어서서 이 조직을 '후세무민의 불법조직'으로 규정하고 불법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리홍즈가 '파룬궁'을 창시한 것은 1992년 5월, 이때 중국기공학회에 등록한지 불과 7년만에 수련자가 중국대륙의 4000만~7000만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7000만~1억 명에 달하며, 미국 등 8개국에 지부가 설립되는 등 그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현재 이 파룬궁은 전 세계적으로 그 조직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한 인식이 아직도 강압과 강제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중국의 대외 문제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예들 들어, 중국은 다른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할 때 ‘하나의 중국원칙(One China Policy)³⁶⁾에 동의를 강요하며 자국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대만 통일을 위해 중국 인민 자신들에게도 통일 중국의 의지를 심어주고 외국 국민들에게도 중국 통일을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시켜나가는 중국의 정책이라고 본다.

그러나 서로 다른 국가와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강제적 인식은 국가적 이해충돌과 국민적 감정 대립을 야기하게 될 수도 있다. 가끔 중국의 한국 인식에 의한 중국의 정책적 움직임을 한국 정부는 한국인의 중국과 중국 인식과 반응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두 국가와 국민사이에는 많은 마찰이 생기게 된다. 김치파동에서 나타난 것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중국 인민과 한국 국민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본다.³⁷⁾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기대와 열정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중국의 좋은 점과 전망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의 짝사랑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중국에 조기유학 가서 배운 학생들이 보는 중국은 세계에 가장 위대한 나라가 그들에게 인식되기 때문이다.³⁸⁾

사실, 국가적 인식이란 외교적인 정책 문제다. 그래서 역으로 이러한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이 국가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

36)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06-02/05/content_4139532.htm (2006년 6월 17일)

BEIJING, Feb. 5 (Xinhuanet)

A Chinese Foreign Ministry spokesman said here on Sunday that China noticed the United States repeated its stance to stick to the one-China policy and opposed the so-called "Taiwan Independence." On Jan. 29, Taiwan authority leader Chen Shui-bian proposed the abolishment of the "National Unification Council (NUC) and the National Unification Guidelines" and talked of "applying for United Nations membership under the name of Taiwan." A U.S. Department spokesperson on Jan. 30 repeated the one-China policy, saying the United States opposes 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 across the Taiwan Straits.

37)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511/h2005110311371921950.htm> (2006년 6월 17일)

네티즌 "식약청이 '김치 파동' 주범", <한국일보>, 2005년 11월 3일.

38) 2005년 11월 북경대학 정부관리학원에서 주최한 '한·중정치행정세미나'에 참석자중 조기유학생(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들을 상대로 대답한 내용에 의하면 모두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국가적 인식과 정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인과의 인식 문제는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꾸준히 노력하여 양 국가와 국민의 서로간의 인식과 국제적 만남에 서로 충분한 준비와 이해 그리고 양해 및 설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인의 중국 인식과 중국인의 한국 인식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 앞으로 같은 지역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갈등을 극복해야 할 우리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와의 관계와 우리 국민의 중국, 중국인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다.

6. 결론 - 기존의 한·중 관계와 앞으로의 과제

지금까지 논술했던 내용 중에서 한반도에 있는 국가와 중국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상호인식의 차이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3 <시기별 한국정부와 중국정부의 상호인식의 차이>

시기	한국의 중국 인식	중국의 한국 인식
1840년 이전	중원의 맹주로 중국을 생각함. 한반도 지역 국가(대립과 협력).	중화사상에 근거하여 한국을 생각함. 중국 변방 국가(북공과 조공).
1840-1910년	외세의 침략에 의해 중국의 영향력에서 이탈하기 시작.	중국의 영향력 안에 조선을 유지시키려 꾸준히 노력.
1910-1940년	중국이라는 지역을 활용하고 그 지역 세력과 협력하며 항일투쟁 전개하며 중국에 직·간접의 도움요청.	제국주의의 침략 하에서 한국과 과거의 역사를 고려하며 한국을 돕고, 한국을 일본의 항일전쟁의 동지로 생각.
1948-1992년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열된 국가	중공과 혈맹의 관계에 있는 북한

	의 외교관계. 한국과 중화민국의 외교관계로 북한과 중공을 분석하고 대비함.	을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정 치·외교·경제적 협력대상으로 인식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강조 함.
1992년 이후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경제 및 정치적 모든 관계가 신 속히 발전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며, 대만은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체 로만 인식함. 중국을 경제발전 문제와 한반도 문제 해결의 협력자로 인식함.	중화인민공화국은 경제적 발전의 협력자로 한국과 교류를 증대하 면서, 조선(중국의 변경)의 안정 을 위해 한반도에서 중국의 역할 을 국제적으로 격상시키며 평화 적인 대만 통일을 위해 한국과 조 선의 중국정치에 대한 지지를 강 조하며 아시아에서 천천히 과거 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음.

사실, 국가나 국민이 상대방 국가와 국민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국가관계가 갈수록 밀접해지는 현 시점에서 매우 현실성 있는 과제이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는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현재 중국은 한국에 비해 토지도 크고 인구도 많으며, 앞으로 강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기초도 튼튼히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한국은 요즘 중국의 경제발전이 편승하여 같이 발전해가야 한다. 비록 협력하는 과정 중에서 중국 정부와 그리 유쾌하지 않은 일도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문제없이 중국 그리고 그곳의 인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의 발전을 우리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현재 중국인들은 비교적 우호적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민간인들이 힘써 만들어낸 ‘한류(韓流)’의 역할도 무척 크며, 정부의 대중국 정책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민간교류도 이미 세계에서 가장 친한 외국 친구로 서로가 서로를 맞이하고 있다.

보다 발전된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 양 국가와 국민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한·중관계속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는 모두 비교적 원만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양 국가의 국민들도 서로에 대한 문화적 공통점과 경제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한국의 금융위기 때 중국정부와 중국 인민들이 언론을 통해 보인 반응³⁹⁾과 현재 중국인들이 자주 한국을 방문하며 보이는 그들의 자신감을 보면,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들이 계속하여 한국을 수교 후 15년간 보여준 모습으로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을 볼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다면 한국인의 중국정부와 총괄적 중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정도가 넘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성적이지 못한 애정은 문제를 야기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에게 지나치게 우리의 성격이 강해보이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비치는 것⁴⁰⁾ 보다는 보다 효과적으로 '역동적(dynamic)'이면서도 '조용히 떠오르는 아침(morning carn)'의 나라' 한국의 이미지로 보여 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던 혹은 대만이 통일이 되던 한·중관계의 기본 골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보다 발전적인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 국가와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한 서로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參考文獻》

- 金觀濤, 河世鳳 역, 《中國史의 시스템理論적 分析》, (서울 : 도서출판 신서원, 1995).
- 김진호, <중국학 연구분야와 그 방법론에 대한 고찰>, 《현대중국연구》 제5집2호, (서울 : 현대중국학회, 2003).
- 김진호, <냉전 후 동북아 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한국 외교전략>, (북경 : 북경
-
- 39) 임계순, <중국인이 분석한 한강의 기적>, 《중국인이 바라본 한국》,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2), p. 131-167.
- 40) 임계순, <중국인이 본 한국인의 성격과 가치관>, 《중국인이 바라본 한국》,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2), p. 218-247.

대학 박사학위논문, 1998).

김대환, 백영서, 《중국사회성격논쟁》,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88).

김한규, 《한중관계사 I》, 《한중관계사 II》, 대우학술총서 423 논저, (서울 : 도서출판 아르케, 1999).

민두기, <시간과의 경쟁>, 《동아시아 근 현대사 논집》,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2002).

백영서, <大韓帝國期 韓國言論의 中國 認識, 1896-1910>, 《歷史學報》, Vol.153, (1997).

백영서,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서울 : 창작과 비평사, 2000).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중국 근현대사의 재조명》, (서울 : 지식산업사, 1999).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한국 근대사의 재조명》,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심규호,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중국사》, (서울 : 일빛, 2003).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서울 : 중심, 2001년).

이재령, <남경국민정부시기 한국언론의 중국인식>, <동아일보> (1929-1935) 기사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Vol.15, (서울 : 2003).

錢穆, 권중달 역, 《중국사의 새로운 이해》, (서울 : 집문당, 1990).

진재교, 임경석, 이규수,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 속의 한국》, (서울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4).

하정식, 유장근, 《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모》, (서울 : 혜안, 2002).

姬田光義, 阿部治平 外, 편집부 역, 《중국근현대사-아편전쟁에서 1982년까지》, (서울 : 일월서각, 1997).

신승하, 《중국사》,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강춘화, 《당대중국학입문》, (서울 : 박영물출판사, 1998)

胡春惠, 신승하 역, 《중국인의 한국독립운동》, (서울 : 단국대학교출판부, 1976년).

금희연, <중국의 경제개혁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 제2부; 중국 정치경제의 최근 현황 ; 한중관계의 정치경제 ; 양국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Vol.5, p.148-192, (전체 45 pages), (서울 :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1998).

이홍욱, <중국의 현황과 한중관계>, 《법정연구》 Vol.5, p. 39 - 65, (전체 27 pages),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기획 학술세미나 : 1998).

김형석, <역사적 맥락에서 본 한중관계와 중국선교 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 4, p.262 - 284, (전체 23 pages), (1995).

이홍표, <새로운 세계정세의 변화와 남북한관계의 개선방향 : 등소평 시대의 한중관계 - 변

화추이와 전망>, 《국제정치논총》, Vol.30, No.1, p. 61- p. 76, (전체 16 pages),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1990).

이기동, <고대분야 - : 황해를 통해 고대 한중관계사의 전개>, 《진단학보》, Vol.68, p. 173, - p. 178, (전체 6 pages), (서울 : 진단학회, 제2회 환황해 (環黃海) 한중교섭사연구 (韓中交涉史研究) 심포지움, 1989).

박두복, <북한정책에 관한 특별 하계학술회의 기획논문 : 북방정책과 남북한 : 중국의 대한 반도 정책과 한 중관계>, 《국제정치논총》, Vol.29, No.2, p. 71 to p. 85, (전체 15 pages),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1989).

전해중, <중국과 한국 - 한중관계사 토론의 (導論) 일척>, 《동방학지》, Vol.9, p. 1, - p. 19, (전체 19 pages) (서울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68).

차주환, <한중관계 한국측 자료해제>, 《중국학보》, Vol.6, No.0, p. 137 - p. 175, (전체 39 pages), (한국중국학회, 1967).

윤근로, <대만 연전(連戰)국민당주석의 대륙방문>, 월간 《아태지역동향》 161권, (서울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5).

임추산, <신국제질서하의 한 대만관계 ; 한 대만 양국협력과 아태지역의 번영>, 《중소연구》, 16권 , 2호 , p.11- , (전체 15 pages), (서울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1992).

《英文提要》

This paper seeks to expose the understanding of Korean and Korea government on China and Chinese & Chinese and China government on Korea and Korean. Although we think Korean and Chinese are very similar each other. But, in fact, Korean is very different with Chinese and Chinese is also different with Korean. So, Korean and Korea governments can not understand Chinese characters and the proceeding of internal and international politics of China government. Likewise, Chinese and China government can not understand Korean characters and the proceeding of internal and international politics of Korea government.

So, I tried to explain what is different between Korean and Chinese and what is different between the way and behavior of Korean's and the way and behavior of Chinese.

The answer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had belief that China is the biggest country in the world before 1840, but Korean finally had found that western empire is stronger than China. 1840 and 1894, Korea lost his belief on China. Korean and Korea government recognize the other world. Therefore, the thinking of Korean themselves and the thinking of Korean on Chinese and China government had been changed from those times.

Secondly, Korea also had occupied by imperial Japan from 1910 to 1945. Korean could understand the real world and had tried their best to get independence with joint struggle with Chinese Kuo-min party(KMT) and socialist party. China government had thought that Korea is its like-minded country from that time. Finally Korean got independent in 1945. But, Korean was divided by two as China was in 1949.

Thirdly, Korea government had been keeping a good relationship with Republic of China from 1948. But 1992, Korean finally made a diplomatic relations with People republic of China. Korea government finally gave up cold war diplomacy. Korean had developed all kind of relationship with People republic of China. From that time, the understanding of Korean and Korea government on China and the understanding of Chinese and China government on Korea had been changing rapidly.

I believe that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n the certain country makes that country change its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n the country.

Keyword : understanding Korean Chinese Government Politics Economics
Development Cooperation